즉시 배포용: 2016 년 10 월 4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여름 콘서트에서의 미성년자 음주단속 결과 발표

표적 집행 기간 수백 명 체포 및 신분증 몰수

예방작전은 뉴욕주 전체의 미성년자 음주 행위를 없애고 도로안전을 지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여름 콘서트 시즌 미성년자 음주단속에 대한 공동 소탕 작전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사 기간 수사관들은 411 명의 미성년 음주자를 체포하였으며 437 개의 가짜 신분증을 몰수하였습니다. 예방 소탕작전은 지역사회의 미성년자 음주를 막고 뉴욕 전체의 도로안전을 위하여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수사관들이 지방법률 집행기관, 주 주류관리국, 뉴욕주 경찰청 및 뉴욕주 공원 경찰서와 연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잠재적으로 인생을 바꾸거나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소탕작전은 막을 수 있는 비극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의 이런 무모한 행위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소탕작전에 대한 사전예고를 6 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여름 콘서트 시즌 기간에 시민들, 특히는 뉴욕의 청년들이 안전을 지키고 제대로 보호받게 하려고 주의 여러 기관이 연합하여 새러토가 공연 예술 센터(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시러큐스의 레이크뷰 원형극장(Lakeview Amphitheater), 버펄로의 캐널사이드(Canalside), 제네시 카운티의 다리엔 레이크 공연 예술 센터(Darien Lake Performing Arts Center), 캐넌다이과의 CMAC 및 롱아일랜드의 존스비치 니콘 극장(Nikon at Jones Beach Theater)에서 미성년자 음주단속을 벌려 411 명을 체포하고 437 개의 가짜 신분증을 몰수하였습니다. 장소별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소	체포 건수	압수 문서
Buffalo Harbor Canalside Concerts	34	28
CMAC in Canandaigua	54	37

Darien Lake Performing Arts Center	115	130
Lakeview Amphitheater	59	47
Jones Beach Theater 의 Nikon	62	72
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87	123
합계	**411**	**437**

예방 작전

예방 작전은 DMV 가 다년간 진행해 온 기획으로서 콘서트뿐만 아니라 바와 음주시설, 이벤트 및 기타 미성년 핫스팟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 소탕작전 기간에 주의 수사관들은 법률 집행기관과 합작하여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21 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알코올 구매 의도로 가짜 신분증 혹은 위조문서를 사용할 경우 체포하고 그들의 운전 면허증을 최소 90 일에서 최대 1 년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최근 몇 주간 DMV 수사관들은 Cuomo 주지사가 8 월에 발표한 대로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대학가에서 연합 소탕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DMV,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사무실, 뉴욕주 주류관리국 및 뉴욕주 경찰청은 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하고 대학생 보호와 대학 캠퍼스의 안전 향상에 대한 주지사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을 조정합니다.

DMV 사무부 커미셔너 Terri Eg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MV 가 또 한 번의 여름 콘서트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마치면서 우리는 뉴욕 전역 대학 캠퍼스 젊은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리더십에 감사를 드리며 DMV 가 계속하여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위한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경찰청장 George P. Beach I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경찰관들은 모든 미성년자 음주로 인한 비극은 피할 수 있음을 직접 증명합니다. 주 경찰청은 미성년자 음주자와 그들에게 제공한 자들을 검거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과정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우리의 파트너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주 주류관리국 국장 Vincent Bradle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LA (State Liquor Authority)는 미성년자 음주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주와 지방 법률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DMV 는 여름 동안 사전 집행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주민과 뉴욕의 젊은이 모두를 미성년자 음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비극으로부터 보호한 것에 대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주 공원경찰서 서장 David Herrick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공원은 우리 시설에서의 미성년자 음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합니다. 저는 주 전역의 법률 집행기관이 공원 방문객과 콘서트 관람객의 안전을 지키고 도로 위의 음주 운전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공동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작년에 개강을 맞이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가짜 신분증을 사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DMV 수사관들은 미성년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온라인으로 해외업체로부터 가짜 신분증을 구매한 후 신원 절도의 피해자가 된 수십 건의 사례를 수사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